

광주-광저우 27년 우정...경제·문화 협력 공동체로

자매결연 27주년...협력관계 강화 광저우 3대 여행사와 업무 협약도 '광주통합돌봄 혁신상' 최고상 수상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시가 자매결연 27주년을 맞아 경제·문화협력 공동체로 거듭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쑨쯔양 광저우시장과 지난 6일 오후 광저우 백조 호텔에서 '광주-광저우 협력 강화 협약'을 맺었다. 양시는 실질적 교류를 통해 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류회의 격년 개최, 매년 상호 방문단 파견으로 우호를 증진하고 경제적으로 e스포츠·축구·마라톤 등 스포츠와 문화교류, 관광상품 개발 등 공동의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광저우시는 중국 3대 도시로 꼽히는 대도시(인구 1800만여명)이자 화남지방의 정치·경제·행정·문화의 중심지다.

양 시장은 이날 협약에 이어 만찬을 함께하고 양 도시가 공동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등 도시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서로의 조인을 구하기도 했다.

또 양 도시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산업이 미래먹거리라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우호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강 시장은 "양 도시는 1996년 자매결연 후 27년 동안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해 왔다"며 "협약을 계기로 한층 더 강화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양 도시는 경제협력 공동체로 나아가길"이라고 말했다.

쑨 시장은 "양 도시의 교류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6일 오후 중국 광저우시 백조호텔에서 쑨쯔양 광저우시장과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교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난 27년간 든든한 교류의 동반자였던 광주시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단장으로 한 광주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광저우에서 도시 외교를 펼친다. 강 시장은 특히 광저우에 모인 세계 도시 대표단을 상대로 '광주 세일즈'를 펼치며 중국 관광객 유치 협약과 설명회, 미래 차 선도시 전라 구상을 위한 광저우 자동차그룹 시찰 등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서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정책이 54개국 198개 도시에서 제출한 330개의 정책과 치열한 경쟁 끝에 5개 정책(도시)에만 주는 최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이날 중국 광저우시

월수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관광 프로모션 데이' 행사를 열어 광저우 3대 여행사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광주관광 설명회'를 하고, '광주관광 활성화 업무협약'도 맺었다. 협약을 맺은 광동성중국청년여행사유한공사, 광저우광저우국제여행사, 광저우강위국제여행사는 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행사로, 전국 단위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규모를 갖춘 대형 여행사다.

협약에 따라 광주관광공사는 광주를 목적지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며, 중국 현지 여행사들은 광주의 주요 축제, 스포츠, 미식 등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뿔제비갈매기, 영광 육산도에 '번식 등지'

전 세계 200마리 안팎...지난 봄 찾아온 7마리 2020년부터 확인

전 세계를 통틀어도 200마리도 안 되는 철새 '뿔제비갈매기' <사진>가 무인도인 영광군 육산도를 번식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됐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3-6월 영광군 육산도에서 발견된 뿔제비갈매기 7마리는 2020년부터 매년 찾아오는 개체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중국 동해안에서 번식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는 관련 정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새로 꼽힌다.

뿔제비갈매기는 특히 1937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다가 63년 만인 2000년 중국 남부 한 섬에서 4쌍이 발견됐으며, 이후 중국이 복원사업을 벌이면서 지난해 가을 중국 칭다오에서 최대 124마리가 확인됐다. 뿔제비갈매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절멸'(야생 절멸) 직전 단계인 '위급'으로 규정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육산도에 찾아오는 뿔제비갈매기를 폐쇄회로(CC)TV와 무인 센서 카메라 등으로 관찰한 결과,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국내 번식지에 도래해 4월 말 번식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을 낳기 전까지는 밤에만 섬에 머무르고 산란 후엔 먹이활동을 할 때 빠르고 섬에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알은 1개만 낳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내 산란 시기는 4월 15-19일로 중국에서보다 50일 정도 빨랐다.

어미 새가 알을 품은 뒤 26-28일이 지나면 새끼가 부화했으며, 새끼는 태어난 지 37-43일 만에 어미 새와 함께 비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뿔제비갈매기가 번식지를 떠나는 시점은 7월 중·하순, 한국을 떠나 중국 산둥반도 쪽으로 이동하는 시점은 8월 초로 조사됐으며, 올해 육산도에서는 한 뿔제비갈매기의 '비밀스러운 사생활'도 발견됐다.



뿔제비갈매기 암컷 1마리와 수컷 2마리는 2016년부터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암컷은 2016년부터 6년간 같이 번식 활동을 한 적이 살아있음에도 올해 다른 수컷과 번식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등 바다새는 번식에 성공하면 짝은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라고 생태원 측은 밝혔다.

육산도에 뿔제비갈매기가 찾아온다는 것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16년으로, 이때부터 한 번이라도 육산도에 도래한 적 있는 뿔제비갈매기는 2020년부터 매년 오는 7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다.

육산도는 영광군 7개 무인도를 묶어 부르는 '칠산도' 가운데 하나로 2016년 뿔제비갈매기 번식지로 확인돼 특정도서로 지정됐으며, 갯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 등 멸종위기 새의 주요 번식지인 칠산도 전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육산도는 뿔제비갈매기 번식지 '북방한계선'과 같다는 공통점도 있다.

뿔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에 처한 원인으로 인간의 알 채취, 태풍, 큰제비갈매기와 교잡 등이 꼽힌다. 다행히 육산도는 특정도서여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고, 뿔제비갈매기 번식기(4-6월)에 태풍이 영향을 끼치는 일이 드물며 갯이갈매기가 대부분 서식해 '유리한 번식지'로 분석되고 있다는 게 국립생태원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유엔 사무총장 52년만에 '헌장 99조' 발동...가자 휴전 촉구

"가자지구 상황 빠르게 악화" 서한 UAE, 안보리에 결의안 초안 제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며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2017년 취임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글로벌 위협에 대해 공식 경고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헌장 99조에 따라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가자지구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공공질서가 곧 완전히 무너져 이로 인해 이 지역에 더 적은 원조가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염병과 가자지구 주민이 인접국으로 대거 이주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는 것을 포함해 "훨씬 더 나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인도주의 체계의 심각한 붕괴와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전쟁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헌장 99조는 사무총장에게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문제든 안보리의 주위를 환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방글라데시 국가 수립으로 귀결된 1971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 이후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발동된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스토펜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유엔 헌장 99조가 수십년간 발동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로이터는 아랍국가들이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권한 발동을 활용해 며칠 안에 안보리가 휴전을 촉

구하도록 압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안보리 이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서한에 따라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들에 따르면 UAE는 오는 8일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에 가자지구와 관련해 설명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연합뉴스

7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원 지급

전남도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물 근절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으로,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인접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

건(12%), 담뱃통 실화 4건(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

이에 전남도는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다.

신고는 119, 산림청, 시·군 산림부와 스마트폰 '스마트 산림재해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개발부지 매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차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영업 오후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